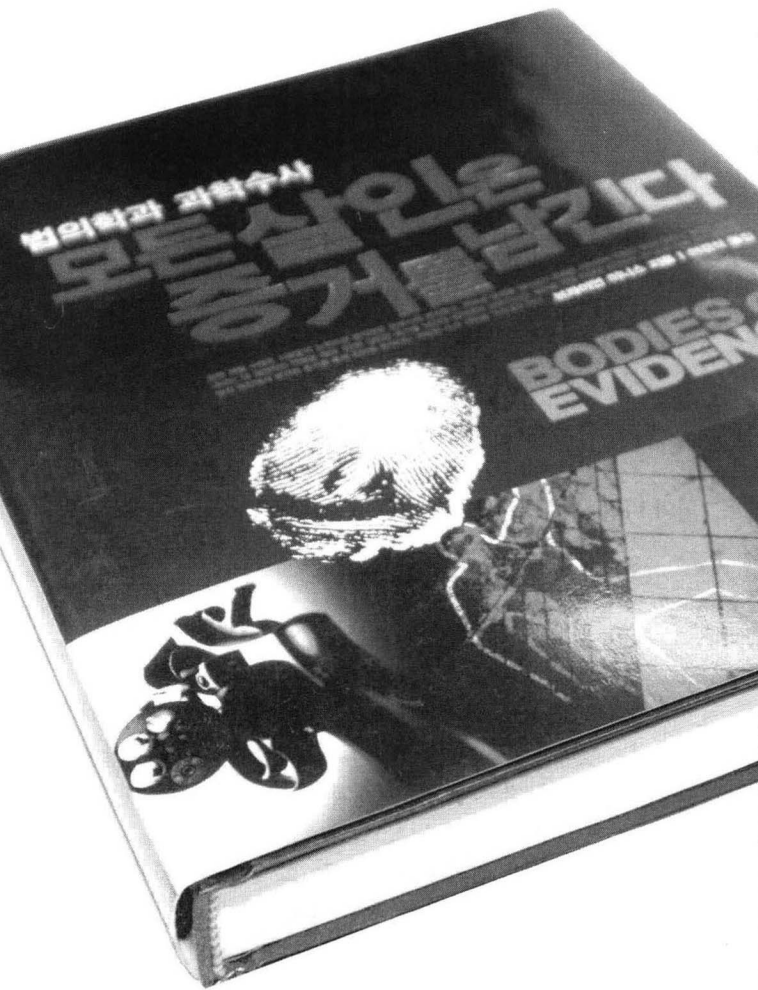


귀신도 울고 가는 범죄학자들

브라이언 이니스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 | 이경식 옮김 | Human&Books | 330쪽 | 29,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아이 무서워!? 책장을 넘기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전신을 흘러 감는다. 전율이라 하던가? 뭐 그런 것 말이다. 사진 몇 장을 보고나니 꼭 죄를 짓고는, 그만 잘못하여 증거를 남기고 도망을 온 기분이 든다. 목덜미를 잡힌 듯, 그런 야릇한 기분 말이다. 죄 짓고는 못 산다더니 만... 어디 숨겨 놓은 죄 없는 사람 있을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 현장에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고, 또 현장에 있던 어떤 것을 지니고 돌아간다. 범죄학자들은 단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도 범행과 관련된 수많은 사실들을 밝혀낸다. 때론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 1장 '증거수집' 첫 장에 써둔 글이다. 하여튼 '완전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이 책을 읽을지이다! 과학은 전쟁 덕에 발달한다더니만, 알고 보니 범인 잡느라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 과학인가 보다. 하긴 '범죄와의 전쟁'도 전쟁이니까...

책 제목을 적어 볼 터이니 따라 읽어 보시라. 죄를 저지를 생각이 짝 가실 것이다. 증거수집, 자살이나 타살이나, 죽음의 흔적, 치명적인 독극물, 두개골과 뼈, 생명의 호흡, 사체 속의 벌레들, 지문은 말한다, 피는 알고 있다, DNA 지문, 머리카락과 섬유조직, 발사된 총알, 화재와 폭발, 파편과 증거, 목소리의 주인공, 범인 식별, 법의학의 장비들, 이렇게 17장으로 나누고 수많은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서, 사건의 예를 따로 제시하면서 목 조여온다. 속절없이 잡고 만든다!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지. 전공이 생물이자 필자의 '개 눈'에 제일 먼저 '사체 속의 벌레들 Worm in the Flesh(134쪽)'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사람이 죽은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파리들은 사체의 눈이나 상처 혹은 여러 구멍에 알을 낳는다(필자의 주석 : 낳지는 외부로 뚫린 구멍이 아홉이고 여자는 열임). 이 알들은 8~14시간 이내에 부화한다. 그러므로 유충의 성장 단계를 보고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가 있다. 사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것도 밝혀 낼 수가 있다. 공기에 노출될 경우 최소한 여덟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곤충들의 침입을 받는다. 첫 번째의 침입자는 '금파리'이고 마지막은 '딱정벌레'다. ...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면 온갖 곤충들이 사체에 몰려든다. 진드기들도 그 중의 하나다.”

빠어난 곤충학자가 돼야할 판이다. 저지는 각 장마다 대표적인 큰 사건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설명을 해 나간다. '사체 속의 벌레들'에 소개한 '윌리엄 브리틀 William Brittle 사건'을 보자.

“1964년 6월 28일, 잉글랜드 버크셔에 있는 한 숲에서 소년 2명이 낚시 미끼로 쓸 구더기를 구하려고 토끼나 비둘기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마침내 이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금파리 메

가 수북하게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곰파리 떼를 해집자 사람의 팔이 드러났다. 키스 심수박사가 나타나 시체 발굴을 지휘하였다. 경찰은 시체가 부패한 정도로 봐서 6~7 주전에 살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심수는 그의 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9일에서 10일, 기껏해야 12일 쯤 지난 습니다."

"브리튼의 살인죄를 식리하던 법정에서 브리튼의 변호사가 증인 세 명을 내세웠는데, 이들은 하절같이 6월 20일과 21일에 토머스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심수의 노력으로 배심원들은 증인들이 보았다는 날짜가 틀리다는 것을 확신하고, 브리튼은 중신형을 선고받았다. 곤충학을 전공한 법의학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얼마나 중요하지 입증하였다."

웬 놈의 살인 사건이 그리도 많은지. 책에 실린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것도 별의별 사건이 다 있다. 허나, 귀신도 모를 사건들을 그래도 다 잡아내고 있구나! 귀신보다 나은 수사관들이요 범죄학자, 법의학자들이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한 사람은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 박사란다. 1912년에 발생한 슬픈 살인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 원칙을 증명하였단다. 바로 '에밀 거브린 사건'이다.

"리용의 은행원이었던 거브린은 자기 애인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에게는 확고부동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에드몽 로카르 박사는 용의자의 손톱 아래에서 먼지부스러기를 확보한 다음 현미경으로 조사했다. 그 안에 피해자의 목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조직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분홍색 분가루가 묻어있었다."

그렇다! 이 책에는 미해결 사건이 없고 잡히지 않는 범인이 없다! 읽다보니 미처 몰랐던 상식 아닌 상식을 많이 얻었다. 어디, 같이 읽어보자.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읽으면 더 실감이 날 터인데...

"복도에서 범인이 흘린 혈액에서 채취한 DNA 띠무늬와 심수의 혈액에서 얻은 띠무늬가 일치하는 사진/사람이 목을 매고 달려있을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 생각하고 줄부터 자른다. 민일에 타살이라 하면 결정적인 단서가 달아나버리고 만다./자살을 기도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인히기 전에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몇 차례 불확실한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일본에 할복이라는 자살의식이 있다. 자살을 시도 하는 사람이 배에 칼을 꽂으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체 없이 목을 쳐주기도 했다./때로는 타격을 받은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누 밑에 멍이 들기도 하고, 출혈도 귀에서 발견 된다./칼에 찔렸을 경우 의학 관련자가 없을 때는 절대로 칼을 뽑으면 안 된다. 칼을 잘못 뽑으면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남 성부의 95%는 뼈에 농축된다. 오오드를 추적자로 해서 엑스선 분석을 하면 뼈에 침착된 납을 확인할 수가 있다./두개골을 관찰하면 나이와 성별을 판단할 수 있다. 10대에 접어들지 않은

사람의 두개골에서는 영구치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화역에 휩싸인 노르닉 호에서 118명의 유골이 수습되었다. 단 3명을 제외하고는 신원을 밝혀냈다. 대부분 치아 기록으로 확인 한 것이다.(필자 주석: 요새는 DNA 분석으로 더 정확하게 한 동남아 쓰나미 때 그랬다.)/깨물어 생긴 다리의 상처에서 남아있는 침을 분석하거나 DNA 분석을 할 수도 있다/질식사한 시체에서는 흔히 얼굴 피부와 눈꺼풀, 또는 입안에 작은 일혈점(溢血點)이 나타난다./범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경우 범인의 손가락 자국이 멍으로 남는다."

그만하겠다. 전체 329쪽 중에서 133쪽까지의 사진 설명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마누라는 남편을, 남편은 마누라를 죽이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양 사람들의 잔인성, 잔학성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말이다. 하기가 쫓고 쫓기는 싸움은 우리나라에서도(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성선설(性善說)을 믿어온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휴먼앤북스 출판사에서 낸 이 책은 깨끗한 사진을 많이 실어야 했기에, 두껍고 질 좋은 종이를 쓰다보니 책이 두툼하고 큼직하다. 그래서 보나마나 책값이 좀 비싸다.

저자인 브라이언 이니스(Brian Innes)는 1928년생으로 영국 런던대학교의 킹스 칼리지 화학부를 졸업했다. 출판계로 들기 전에는 생화학 연구원으로 일했고, 그 후 40여 년간 저술활동을 하면서 법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수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왔다고 한다. 지금은 프랑스 남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번역을 맡은 이경식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희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번역한 책으로는 《유전자 인류학》 《의학사의 이단자들》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이 하는 말이 들리는가. 죄짓지 말고 살라! 착하게, 아주 착하게 살아도 당신의 인생은 짧디 짧다! **4.10**